나주서 목포까지…'80년 5월 버스'로 전남 사적지 돈다

5·18 41주년 '남도울림' 주제…전남 지역 항쟁지 아우르는 행사로

20일 함평·무안 등 순회···17·18일 도청앞서 본행사 개최 목포역~전남도청 차량행진…학술토론회·'오월 문화제'도

올해 5월에는 전남지역 5·18 항쟁지를 모두 아우 르는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5·18민주화운동의 41주년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는 5·18민주화 운동의 주요 항쟁지와 발생지인 나 주·함평·무안·목포 등을 둘러보는 '순회버스' 운행 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된다.

지난해 40주년임에도 준비된 많은 기념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점과 현재도 코로나 상황인 점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과 병행해

26일 전남도와 '전남 5·18민중항쟁 41주년 기념 행사위원회'(전남 5·18행사위)등에 따르면 올해 5 ·18 기념행사는 '남도울림'이라는 주제로 준비됐

전남의 5·18 사적지를 순회하는 버스 프로젝트 는 5월 20일 하루만 실시된다. 지난해 사적지로 지 정된 시·군별 주요 항쟁지, 희생자 발생지 등 역사

적 대표성이 뚜렷한 장소 위주로 방문한다는 게 전 남 5·18행사위 측의 설명이다. 지자체별로 1~3곳을 이동하며 운영되고, 목포역이 최종 도착지이다. 순

5월 4일에는 목포역에서 남악의 전남도청까지 차량행진도 준비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전 환을 이룬 택시와 버스 등의 차량시위를 의미하는 행사로 농민회와 함께 농사용 트럭을 위주로 재현

회버스도 도색을 해 1980년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5월11일에는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호남, 항 쟁의 역사를 말한다'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도 개최 된다. 이 학술 토론회에서는 전남의 5·18민주화운 동 관련 연구 및 계승사업 방향에 대한 주제가 발표 되고, 전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실태에 대해 자 유토론도 진행된다.

기념행사의 꽃인 본행사는 17일과 18일 2일간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코로

나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 역수칙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집합 인원은 아직 정 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7일 오전 11시부터 41주년 기념식이 열린 다. 기념식에서는 기념공연과 각종 시상식 등이 예 정되고 있다.

5월 18일에는 '남도오월 문화제'가 열린다. 5·18 을 기념하는 문화공연으로 노래공연·퀴즈 이벤트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진행됐던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인 '도민 난장' (도민어울 림), '518남도울림-도민 대행진' 등은 진행되지 않

온라인을 이용한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5월 25 일에는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는 전남의 청 년·청소년들이 전남도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영상이 '다크투어' 형식으로 만들어져 온라 인상으로 공개된다.

이정석 전남5·18행사위 집행위원장은 "올해 기 념행사를 통해 전남에서도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41주년을 맞아 5·18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

26일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에서 임택 동구청장, 올해의 책 도서 선정위원, 주민대표, 독서활동가 등이 선정된 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치사율 20%' 봄철 야생진드기 주의보

SFTS 바이러스 첫 확인…야외활동시 긴소매 옷 입어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발열성질환 매개 체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채집한 야생 진드기에 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를 올해 첫 확인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중 매달 야산 및 등산 로 인근의 숲속, 하천변 고수부지에서 야생 진드기 를 채집해 SFTS 및 라임 등 다양한 발열성질환 병 원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 으킬 수 있는 SFTS와 라임 등 각각 1건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최종 확인·진단했다.

SFTS는 4월에서 11월에 참진드기에 물릴 경우 고열 동반과 함께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증상, 혈 소판감소증상 등의 특징을 보이며, 특별한 치료제 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은 약 20%인 것으로 알려져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 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의 착용이 중요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입었 던 옷의 세탁과 샤워를 하며, 반려동물과 산책 후에 도 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 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코로나 위기 함께 극복합시다

광주 북구, 여행업계 돕기 힐링투어

9월까지 무등산 등서 남도 문화•예술 체험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코로 나19 극복 힐링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시민들에게 재충전 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해 지 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 는 지역의 24개 여행업체에 상품 개발비, 홍보 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여행업체는 주민, 관광객, 코로나19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남도 문화·예술체험 투어를 진

투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 리자 지정을 통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 영되고 1회당 20명 이내로 무등산, 시가문화 권, 비엔날레 전시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 지역 곳곳에 있는 관광 명소를 탐방한다.

투어 참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 협회 또는 북구청 체육관광과로 문의하면 된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 입점 업체 임대료 지원 연장

3개월간 30% 지원

광주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내 입 점 업체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광주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내 임대 업체와의 고통 분담을 위해 3개월 임대료 3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대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최근 교내 14개 입점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연장 과 경기침체 상황 등을 지켜본 뒤 추후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1학기와 2학기 모두 착한 임대 운동을 통해 교내 우편취급국 등 15개 매 장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

김혁종 총장은 "교내 입점 업체와 함께 고통 을 분담하며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단순한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연간 252억 들어가는 규정 불합리"

광주시교육청 "재정 압박 작용 학교 현장 특성 고려해야"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규정 일부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 상 신축 건축물은 준공 뒤 30일 이내, 기존 건축 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올해 4월17일 까지(부칙에 따라 유예 가능), 연면적 1만5000 m²이상 건축물은 2022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 만㎡ 이상 건축물은 내년 4월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연 4회 기능 점검과 연 1회 정밀 점검도 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행된 기계설 비법령에 따른 것이다.

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10 B동 1324호 (오룡동 마루힐IBC 지식산업센터) ☎ (062)**973-0064**

광주 지역의 경우 142개교가 대상이다. 법에 따를 경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연간 252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시 교육청은 학교 건축물 내 기계설비는 민간 건축물에 비해 기계설비의 종류가 단순하고, 용 량·규모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 지 않은 해당 법과 시행령 등은 교육재정 압박 요 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시 교육청은 주장하고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학교 특성을 고려, 초• 중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